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09. 04. (목요일)

한미 관세 합의에도...긴장 여전
-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확대 -
- 대미 수출 '주춤'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일단락됐지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시금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들 (사진=뉴스1)

우리 정부는 7월 30일(현지 시간) 미국과의 줄다리기 끝에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주력 수출 품목인 자

동차 관세도 15%로 결정하고,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3천500억 투자펀드에는 미국내 조선업 생태계 조성에 활용될 1천500억 달러와 반도체·원전·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 제공될 2천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232조 관세 50%를,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에 상호관세 15%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자동차·전자기기 부품 등으로 알려졌다.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자로 발효됐다. 발효일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등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 전망이 더욱 신중하게 관측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주요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3.9%)과 무선통신기기(△11.6%)는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미국에 대

한 수출이 줄었다. 동일 기간 대미 수출액은 50억3천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다. 한편 유럽연합(0.1%), 중국(2.7%), 베트남(9.6%), 대만(59.1%)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안태현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맹민주, 김지민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baekya@naver.com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